

2021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 (상편)

총력만능국어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교재 구입]



##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상편 ◀

### 1. 문학의 빛깔

- (1) 슬픔이 기쁨에게 (58문제)-----1 쪽
- (2) 달밤 (59문제)-----29 쪽
- (3) 파수꾼 (58문제)-----74 쪽
- (4) 통곡할 만한 자리 (30문제)-----120 쪽

### 2. 책 속에 길이 있다

- (1) 삶을 바꾼 만남 (40문제)-----142 쪽
- (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19문제)-----167 쪽

### 3. 생각하고 표현하고

- (1) 글쓰기를 잘하려면 (33문제)-----179 쪽
- (2)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30문제)-----203 쪽

### 4. 소통의 힘

- (1) 이유 있는 여유 (30문제)-----222 쪽
- (2) 매체로 보는 세상 (18문제)-----243 쪽

### 5. 바른 언어생활

- (1) 음운 변동 (61문제)-----255 쪽
- 한글 맞춤법 (65문제)-----274 쪽

- ◆빠른 전체 정답-----294쪽
- ◆해설-----29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상편 ◀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상편 ◀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쓴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상편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딱 뿌러지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 이걸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망망의 숲 한켠이 보인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머뭇 에인저>**

**나는 이번 (        ) 고사 (        ) 과목에서 (        ) 점 혹은 (        ) 등급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슬픔이 기쁨에게” 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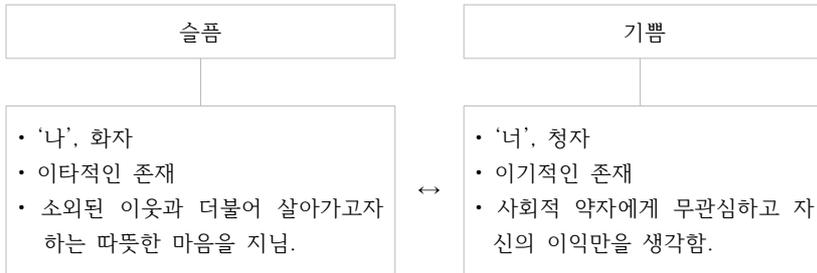
## 1)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비판적, 의지적
제재	슬픔, 기쁨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②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③ 특정 음운, 어미, 음보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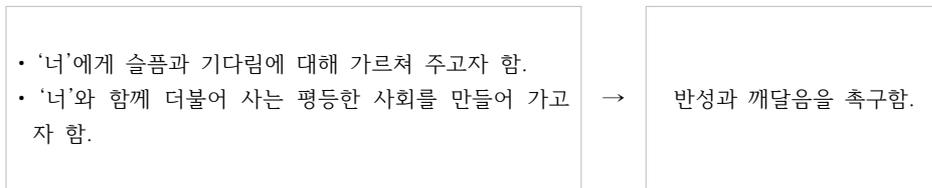
## 2) 작품의 구성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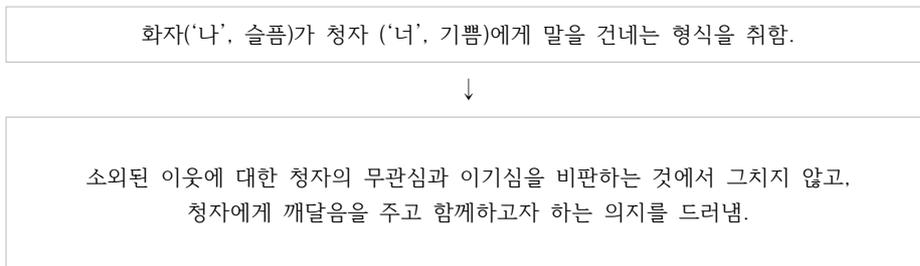
## 3) ‘슬픔’과 ‘기쁨’의 대립적 속성



## 4)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 5) 시상 전개 방식과 효과



6) 시어의 상징적 의미

할머니, 동사자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
가마니 한 장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함박눈	약자에게는 고통,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
봄눈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감싸는 존재

7)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대비	슬픔과 기쁨이라는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대상의 의인화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인격적 특성을 부여하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역설적 표현	슬픔과 기쁨의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함.
'-겠다'의 반복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 “슬픔이 기쁨에게” 구절 분석

1)

교과서 15쪽 1행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 화자 '나(슬픔)'가 청자 '너(기쁨)'에게 슬픔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너'는 슬픔의 가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교과서 15쪽 2행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구절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픔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의 가치를 청자에게, 나아가 독자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다.

3)

교과서 15쪽 3~5행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 '너'는 소외된 이웃의 삶에 무관심하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4)

교과서 15쪽 6행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슬픔의 평등한 얼굴'은 소외된 약자를 멸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을 의미한다. 소외된 약자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의미하는 슬픔도 기쁨만큼이나 소중한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너'에게 슬픔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다

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5)

교과서 15쪽 7~10행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 ‘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은 존재이다. 이때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는 굴을 팔던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이다.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을 정도로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너’는 기쁨이 갖는 이기적 속성을 보여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6)

교과서 15쪽 13행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기다림’은 진정한 의미의 슬픔을 깨닫기까지 필요한 시간이다. ‘나’는 ‘너’에게 소외된 이웃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다. 이 시간을 보낸 ‘너’는 이전의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를 위로하고, 연민할 줄 아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7)

교과서 15쪽 14행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 ‘너(기쁨)’를 고려한다면 가진 사람들만이 누리던 기쁨을 멈추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을 멈추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8)

교과서 15쪽 17행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 ‘눈 그친 눈길’은 소외된 사람들이 눈으로 인해 추위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공간이다. ‘나’는 ‘너’에게 단순히 슬픔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너’와 함께 걸어가하고자 한다.

9)

교과서 15쪽 18~19행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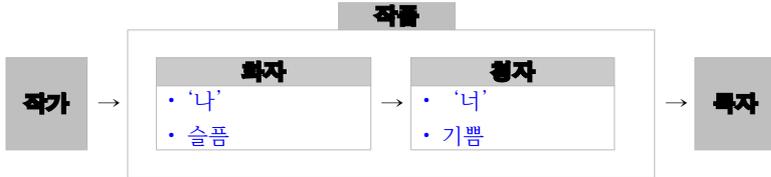
→ 기쁨이 진정한 슬픔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며 함께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슬픔이 기쁨에게”의 화자 분석

1)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를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를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2) 이 작품의 화자와 청자를 찾아보자.



3) 다음 시구에서 알 수 있는 청자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p>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p>	→	<p style="text-align: center;"><b>청자의 모습</b></p> <p>•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는다. • 타인에게 무관심하다.</p>
--	---	--

4) 청자의 행동에 대해 화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 보자.

-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5)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정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역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6)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작가의 문학적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b>일반적 인식</b>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감정이다.
↓ 문학적 인식	
<b>작가의 인식</b>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이다.

1-(1) 슬픔이 기쁨에게 [이론편]

7) ‘함박눈’과 ‘봄눈’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함박눈	봄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진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li> <li>• 험벗은 이들에게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li> <li>•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li> </ul>

8) 다음 시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9) 다음 시구를 낭독해 보고, 운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 4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 ‘-겠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 특정 음운(‘ㄴ’)을 반복하고 있다.

10)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해 보자.

<b>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빛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b>	시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음. (‘슬픔’과 ‘기쁨’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b>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b>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11) 위에서 살펴본 표현 방법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건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깨달음, 즉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12) 서정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가상의 존재인 시적 화자가 존재한다.
-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한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13) 문학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자.

→ 문학은 내용, 형식,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14) <슬픔이 기쁨에게>의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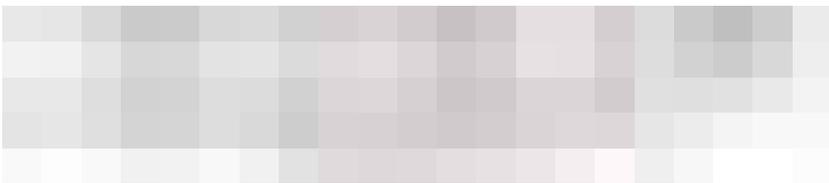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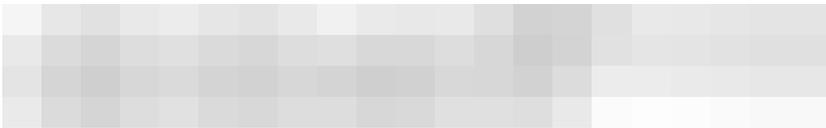
→이 작품은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 운율, 의인법과 역설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의 형식을 통해 이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을 활용하여 그려 내고 있으므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5) 다음은 화자의 정서 또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제시된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b>보기</b>
애상      연민      냉소

(1)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 <input type="text"/>	(2)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input type="text" value="연민"/>	(3)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함. ⇨ <input type="text" value="애상"/>
---	---	---

## “슬픔이 기쁨에게” 읽기 포인트





### 3. 서정 갈래의 이해

#### ① 개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이다. 하위 갈래로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민요, 한시, 현대시 등이 있다.

#### ② 시의 특징

-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한다.
- 운율적 언어를 사용하여 음악성을 형성하며, 함축적 언어를 사용하여 압축된 형식미를 구현한다.
- 비유와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심상 등을 활용한다.

#### ③ 시어의 기능

- 음악적 효과(운율)를 준다.
- 함축적 의미와 다의성을 지닌다.
- 시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형성한다.
- 어조를 통해 정서를 나타낸다.

#### ④ 시적 화자

• 개념: 일반적으로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시에서 ‘화자(話者)’란 작가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시적 화자는 작가의 대리인으로서 시의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상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 • 시적 화자의 기능

- 소설의 서술자처럼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느낌,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등이 시적 화자의 태도나 정서에 반영되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 •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

<b>시적 화자의 태도</b>	시 속에 나타나는 대상 혹은 세계에 대한 시적 화자의 특정한 자세. 작품의 분위기나 시적 화자의 어조를 통해 알 수 있음.
<b>시적 화자의 정서</b>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 시적 화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음.

#### ⑤ 시의 운율

• 운율: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음악적 특징을 가리킨다. 운율에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작품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운율인 ‘내재율’과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인 ‘외형률’이 있다.

#### •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 같은 소리, 단어, 구절, 문장의 반복
-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 일정한 음보 수의 반복
-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

#### ⑥ 발상과 표현

- 발상: 시상을 표현하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는 말로, 시의 창작 과정에서 특정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사상, 정서, 태도 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 표현: 작가의 발상을 다양한 표현 기교를 활용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말한다.
- 발상과 표현의 중요성: 시는 산문과 달리 짧으면서도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발상과 표현의 참신성은 시의 전반적인 느낌은 물론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주요 표현 기법

1-(1) 슬픔이 기쁨에게 [이론편]

<b>비유</b>	하는 대상(원관념)을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활유법, 대유법, 풍유법 등이 있음.
<b>상징</b>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방법
<b>반어</b>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
<b>역설</b>	겉으로는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이면에 어떤 진리(진실)를 담아내는 방법
<b>감정 이입</b>	화자가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감정을 다른 대상에 불어넣어,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금촌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의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지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 ②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슬픔'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슬픔'이 '기쁨'에게 진정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일반적인 인식과 차별화된 작가의 인식을 토대로 시의 함축성이 나타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2. 윗글에 나타난 화자와 청자의 의미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삶은 계란의 껍질이 /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가에서」

②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우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③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손 돌아 파릇하고

- 정지용, 「인동차」

④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과 나와 두 사람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양을 알려면, 당신과 나의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거리가 멀면 사랑의 양이 많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 한용운, 「사랑의 측량」

⑤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 신동집, 「오렌지」

**금촌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의 주제를 <보기>에 제시된 표현법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보기>

비유법의 하나로 연결이 없어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동일시하여 대상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표현법

- ① 함박눈 같은 슬픔
- ② 사랑은 뜨거운 연탄이다.
- ③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 ④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 ⑤ 기쁨은 남에 무관심하나 슬픔은 이웃에 관심을 갖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인 감정을 관념화하여 표현하였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겠다'라는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④ 여러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⑤ 시선의 이동과 원근(遠近)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5. 다음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 ㄱ )을/를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 ㄴ )을/를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 ㄷ )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그	느	드
① 슬픔	기다림	힘	평등
② 슬픔	함박눈	힘	평등
③ 기쁨	함박눈	힘	평등
④ 기쁨	봄눈	기다림	슬픔
⑤ 평등	기다림	슬픔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6.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②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③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 지네.
- ④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 ⑤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를 나타낸다.
- ② ㉡ :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 ④ ㉣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의미한다.
- ⑤ ㉤ :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의미한다.



## 1-(1) 슬픔이 기쁨에게

1.④

▶'슬픔'이 '기쁨'에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및 더불어 사는 삶>과 관련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막연하게 출선수범하는 모습을 요구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겠다'가 의지적 어조에 해당. ②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가 역설적 표현으로 슬픔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놓음. ③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화자(슬픔)가 청자(기쁨)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할 건네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음. ⑤ '기쁨'을 긍정적으로 '슬픔'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슬픔'을 긍정적으로 '기쁨'을 부정적으로 보는 작가의 인식과 함축성이 나타남.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시적 어조의 종류 (★)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 2. 반어 vs 역설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 3.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2.④

▶<슬픔이 기쁨에게>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화자(슬픔)가 청자(기쁨)에게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요구)하는 관계인데, 이처럼 ④도 화자가 청자(당신)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에서는 청자 자체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 ◆주제 저장소◆

- ① <파발가에서>: '새로운 사랑을 향한 의지'
- ② <바다와 나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감'
- ③ <인동차>: '정신적 고결함을 지키면서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삶의 자세'
- ④ <사랑의 측량>: '당신과 멀어질수록 커지는 사랑'
- ⑤ <오렌지>: '존재의본질과 진정한 의미 추구'

#### ▶왔다, 1등급 조언!◀

시험에서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없는 작품이 나오면 누구나 당황한다. 이것은 예고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

다. 일단 침착하고~발문(물어보는 말, 문두)을 다시 집중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물어 본 것인데 모든 시에는 당연히 화자는 있는 것이고 청자가 있는 지의 여부만을 먼저 따져 본다면 ④가 유일하다. 그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게 된다. 나머지는 청자가 없는 독백의 작품일 뿐이다.

외부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기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문제집에서 외부 작품을 만난다면 주제 저장소 정도로만 간단히 해두자. 주제만 대략 알아도 작품의 70%이상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만이라도 아는 것과 주제조차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명심하자.

3.②

▶은유법 찾기로 <A는 B이다>형태. 사람(A)은 뜨거운 연탄(B)이다.

- ①, ③ 직유법 ④ 설의법 ⑤ 대구법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명명,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4.③

▶'갔다' 반복가 반복되고 시에서 반복은 곧 운율을 형성한다.

- ①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화 한 것임. ② 설의적 표현은 없음. ④ 대화가 아니라, '나'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말함. ⑤ 원근의 변화는 없음.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1. 관념적=추상적=공상적 VS 구체적=실제적=현실적 (★)

#### 2.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 3.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6.②

▶역설적 표현이다.~<외로운 황홀한>이 마찬가지로 역설적 표현이다. 외롭다(부정)+황홀한(긍정)이 표면적으로 모순되기 때문.

③ ⑤ 연쇄법 ④ 의인법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1.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이리)

#### 2.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7.⑤

▶ⓐ : 함박눈은 약자에겐 고통이다.

▶**왔다, 1등급 조언**◀

시에서 눈이 나오면 이 눈의 이미지가 반드시 낭만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입견이다. 시험을 대상으로 하는 시에서 눈이 나오면 약 70%이상은 고난, 시련 역경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선입견을 버리고 시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른 분위기와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자.

8.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너에게 필요한 한자 성어임.

② 유유자적: ‘여유 있고 한가하고 걱정 없음.’ ③ 아전인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함.’ 윗글의 ‘너’의 상황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인 것이지 ‘너’에게 필요한 한자 성어가 아님. ④ 누란지위: ‘달걀을 포개 놓은 듯 위험한 상태.’ ⑤ 동가홍상: ‘같은 조건이면 더 나은 것을 취함.’

10.③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대상물인 기쁨과 슬픔을 의인화함. ② 자유시로. 일정한 울격이 구애받지 않음. ④ 시간의 흐름은 없음. ⑤ 대화 아니고 화자가 일방적으로 말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1. 객관적 상관물 vs 감정 이입 (★★★)

ㄱ.객관적 상관물: 대상을 통해 (대상과 유사하거나 일치 혹은 반대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ㄴ.감정 이입: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 하여 대상과 일치되는 감정을 드러냄.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가’

\*‘떨떨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외로움을 환기시키는 <빈 배>와 <피꼬리>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물>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 중 <물>은 화자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상태가 뚜렷하기에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2. 시에서의 ‘대화’ (★★)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하는 화법의 대화와는 다르게, 시에서는 직접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를 의식하고 부르거나 건네는 말만 있어도 독백체가 아닌 <대화체>로 본다.

11.④

▶<자료>의 ㉠은 순수한 꿈과 희망을 나타내고 ㉡은 위시와 마찬가지로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를 나타낸다.

**<맹인 부부 가수>**

\*주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노래함.

\*해제: 이 시는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희망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 따뜻한 작품이다. '맹인 부부 가수'는 거리에서 군중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부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눈을 맞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시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한다. 앞을 보지 못하기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맹인 부부 가수'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눈발을 뚫고 결국 '눈사람'이 된다. 시인은 이 '맹인 부부 가수'의 노래를 통해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서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세상이 오리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였다, 1등급 조언◀**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데 수험생들에게겐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교과서에 지문으로 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제목이 언급된 작품들은 동반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맹인 부부 가수>도 작가 소개에서 제목만으로 언급된 작품에 해당한다.

13.③

▶<우리가 눈발이라면>은 위 시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과 희망을 주는 것을 노래함.

**◆주제 저장소◆**

- ① <산이 날 에워싸고>: 자연친화를 통한 초월적 삶에 대한 동경
- ② <또 다른 고향>: 현실 극복과 이상향에 대한 동경
- ③ <우리가 눈발이라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또는 위로와 희망을주는 존재가 되자.
- ④ <모란이 피기까지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
- ⑤ <알 수 없어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영원히 그를 지키겠다는 의지.

**▶였다, 1등급 조언◀**

외부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기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문제집에서 외부 작품을 만난다면 주제 저장소 정도로만 간단히 해두자. 주제만 대략 알아도 작품의 70%이상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만이라도 아는 것과 주제조차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명심하자.

14.②

▶일상적 통념을 뒤집는 표현(슬픔을 긍정, 기쁨을 부정으로 봄)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5.⑤

▶㉠: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넣어둬, 패턴 공략◀**

**세태:**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의 의미로 어휘 자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 어휘 자체의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이미지이지만 문학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수식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16.⑤

▶<보기>의 '나'는 대상에게 희생적 삶을 노래한 것이지만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연탄 한 장>**

\*주제: 연탄의 자기희생적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 삶을 반성함.

\*해제: 이 시는 '연탄'의 특성을 인간의 삶에 비유하여,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가를 제시한 작품이다. '연탄'은 자신을 태워서 타인을 따뜻하게 해 주고, 다 타고 난 후에도 겨울날 빙판길에 뿌려지는 재가 되어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연탄'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17.①

▶어조 변화는 없다.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관되고 상대방의 처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시적 어조의 종류 (★)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18.⑤

▶㉔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힘.

19.②

▶(A)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고 ②에서 <결별과 축복>은 서로 모순되므로 이에 싸여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역설이다.

- ① 반어법: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속마음은 눈물 흘림
- ③ 점층법: 눈은 살아 있다→~눈은 살아 있다→~~눈은 살아 있다
- ④ 시적 허용: '모든'→ '모오든'
- ⑤ 대구법: 봄은~ / 가을은~, 대조법: 가까운~ / 머나먼~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반어 vs 역설 (★★★)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2. 점층법 vs 점강법 (★)

- ㄱ.점층법: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 그 뜻을 강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 ㄴ.점강법: 내용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해져서 고조된 감정으로부터 점점 가라앉게 하는 표현.  
(우주에서 지구라는 별에 있는 대한민국)

3. 대구 (★★★)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운율 형성!

20.⑤

▶할머니나 동사자에서 느끼는 정서처럼 <여승>에서 아버지를 잃은 여승에게 연민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① ③ 강인하고 의지 넘침. ② ④ 그리움.

◆주제 저장소◆

- ① <교목>: 혹독한 시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
- ② <고향>: 고향 상실과 인생무상.
- ③ <바위>: 초극적인 삶의 추구.
- ④ <사향>: 고향에 대한 그리움.
- ⑤ <여승>: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22.④

▶반성과 깨달음의 자세를 촉구하는 이는 시적 대상이 아니라 시적 화자이다. 시적 대상에게 반성과 깨달음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다.

▶넣어둬, 패턴 공략◀

"주체와 객체 뒤바꿔치기"는 출제자가 좋아하는 노림수이다. 항상 주체와 객체에 해당하는 대상을 헛갈리지 말자!

23.②

- ①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
- ③ 작가 자신이 아닌, 시적 대상의 삶의 태도 변화를 촉구함. ④ 기쁨과 슬픔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임. ⑤ 의인법이 아니라 역설법에 대한 설명임.

25.③

▶'갯다'가 반복됨. 나머지는 헛소리!

26.⑤

- ① 반어가 아니라 역설이라고 ②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려는 데 슬프지 않지 ③ 설의적 표현 아님 ④ 너와 같은 삶의 태도를 관용이 아닌. 화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7.②

▶㉔에는 역설법 사용됨. 강이 흐르는데 안 간데.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역설이지.

- ① 연쇄법 ③ 반복법 ④ 의인법 ⑤ 반어법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이 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이 리)

2. 의인법 vs 활유법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29.①

② 청자가 변화되는 과정은 없음. ③ 반어가 아니라 역설임. ④ 청자를 미워한다기 보단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임. ⑤ 함박눈은 약자에겐 고통임.

▶였다, 1등급 조언◀

시에서 눈이 나오면 이 눈의 이미지가 반드시 낭만적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입견이다. 시험을 대상으로 하는 시에서 눈이 나오면 약 70%이상은 고난, 시련, 역경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선입견을 버리고 시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른 분위기와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자.

30.⑤

▶사건과 갈등은 소설에 해당함.

32.⑤

▶‘눈 그친 눈길’은 모든 이들이 평등한 공간을 나타냄.

33.⑤

① 형식적 정형성은 고전 시가에 해당. <수선화에게>는 누가 봐도 현대시임. ② 뚜렷하게 여성적 어조라고 볼 근거가 없네. ③ ‘외로움은 인간의 근원적인 것’은 ㉠과 연결된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내지. ④ 화자는 외로움을 삶의 본질로 보고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지 세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서 비판적 세계관이 형상화된 것은 아님.

<수선화에게>

\*주제: 외로움을 수용하는 삶의 태도.

\*해제: 이 시는 ‘인간’을 상징하는 ‘수선화’를 청자로 하여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을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듯이, 외로움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순응하라고

말한다. 또한 이 외로움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슴 검은 도요새, 하느님, 새들, 산 그림자, 종소리로 무한히 확장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외로움이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보편적 정서이므로, 이를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담담히 견디며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34.⑤

▶⑤는 반어법 설명이네. 근데 위 시엔 반어법이 아니라 역설법이 사용되었지.

▶넣어둬, 패턴 공략◀

1. 시에서 말을 건네는 것이 있는지 판단하기 (★★)

: 말을 건네는 대상(너, 당신 등)이 드러나 있고 이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음) 말을 건네는 방식임.

35.③

㉠은 청자인 ‘너’가 기뻐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청자가 기뻐하는 일은 당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였다, 1등급 조언◀

맥락 없이 ‘기쁘다’ 어휘 자체로만 따진다면 물론 긍정적이다. 하지만 어휘 시험이 아닌 이상 작품에 사용된 시어는 철저하게 맥락(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선입견이 아닌, 맥락에 근거하여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들이자.

36.③

▶A‘봄눈’은 약자를 감싸는 존재이다. 근데 ③의 눈은 외로운 오후의 분위기를 더 외롭게 만드는 존재로 A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의 ‘눈’ (★)

- 1) 70% 이상 부정적: 시련, 고난, 역경, 외로움 등
- 2) 30% 이하 긍정적: 밝음, 순수, 낭만적 등

38.④

▶㉠은 역설법. ‘결별(부정)이 이룩하는 축복(긍정)’도 곁으로 모순이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설이지.

② 의인법-‘산새가 운다’ ③ 반어법-‘잇었노라’ (속으론 진짜 잇을 수 없음) ⑤ 직유법-‘꿈속을 가듯’

◆주제 저장소◆

- ① <떠나가는 배>: 떠나는 이의 비애
- ② <완화삼>: 유랑하는 나그네의 삶과 한
- ③ <면후일>: 떠나간 임을 잊을 수 없는 심정
- ④ <낙화>: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 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국토를 빼앗긴 민족의 비통한 현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직유법 vs 은유법 (★★★)

ㄱ. 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ㄴ. 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